

EMR 시스템과 정보보안이 중점과제



글 오재우 대전선모병원 정보지원센터 부장 (사)대한병원정보협회 사무총장 sbaby692001@yahoo.co.kr

국 내 병원들의 2006년 정보화 투자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다소 주춤할 전망으로 보이지만 신규 병원 프로젝트의 주도는 공공 병원을 근간으로 활성화 되는 형태를 이룰 것 같다. 병원이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를 넘어서 진료현장으로 다가가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구축한 사례가 발표되고, 많은 병원들이 EMR 구축을 위해 기술 검토 및 신규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다.

EMR 시스템 부문

대한병원정보협회에서 2006년 1월 19일에 진행된 한국형 K-EMR 구축사례 발표회에서 많은 병원들이 보여준 관심과 참여 규모만 보더라도 국내의 많은 병원이 OCS를 넘어서 EMR을 향해 발전하기 위하여 고민과 기술 검토 또는 방법론 등 여러 각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EM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대학병원 중심)은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병원(본원), 동국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신촌), 건국대 병원 등이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병원인 중앙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 병원이자다.

2006년 EMR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병원은 공공의료 병원인 5개 보훈병원과 경찰병원, 가톨릭 중앙의료원 8개 병원 등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병원정보협회도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금년에는

EMR관련 사례중심으로 회원 병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사항을 IT 측면 중심으로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보안 부문

많은 병원이 2006년 투자계획 중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가 보안관련 분야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EMR의 확산 등 병원 업무에 IT가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디지털 병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업무 자체가 마비되고 진료관련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진료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너무 보안만을 중시하다 보면 업무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병원 환경에 맞는 보안정책 수립에 필요한 템플릿을 개발하여 많은 회원 병원이 공유하여 불필요한 투자나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체계적인 보안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각각의 병원환경에 맞는 보안수준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운영시스템의 품질관리 부문

지난해 일산병원의 신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한 부분인 '서비스기반 SMS(System Management Software)시스템 도입'

과 '형상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이 이제는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 부서업무 표준화 및 정보화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여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SMS와 형상관리, 위협관리 등 요소기술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관리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SLA(Service Level Agreement)와 SOP(Service Operation Procedure)를 잘 구축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간에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Users**

